

새로운 교회 대관장에 성임된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단 제1보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



토마스 에스 몬슨 대관장단 제2보좌

금년 5월 30일 별세한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의 뒤를 이어
지난 6월 5일 십이사도 정원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이
제14대 교회 대관장으로 성임되고 성별되었다.

1994년 6월 5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86세)이 제14대 교회 대관장으로 성임되고 성별되었다. 헌터 대관장은 1959년부터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해 왔으며, 1988년부터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봉사해 왔다. 헌터 대관장은 금년 5월 30일에 별세한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의 뒤를 잇게 되었다.

헌터 대관장은 6월 6일에 있는 특별 기자 회견에서 생명과 힘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교회 회원들에게 “서로를 더욱 친절하고, 더욱 공손하며, 더욱 겸손하게 대하고, 더욱 인내심을 갖

고, 더욱 용서하도록” 권고했다.

또 헌터 대관장은 “교회의 모든 회원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고, 성전에 열심히 참여하며, 성전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밝혔다.

헌터 대관장은 고든 비 힝클리 부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패커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대관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게 됨에 따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대관장을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을 제2보좌로 택했다. 힝클리 부대관장과 몬슨 부대관장 모두 벤슨 대관장의 보좌로 봉사했었다.

우 가깝게 지내 왔던” 헌터 대관장과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특별한 영광과 특권으로 생각한다”고 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분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주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인자한 방법으로 온전히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며, 저희는 사랑하는 이 지도자를 모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몬슨 부대관장은 헌터 대관장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헌터 대관장에게 “저는 대관장님이 위대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관장님은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시며, 굶주리는 자들과 집없는 자들에게 온 정성을 다 바치는 지도자이십니다. 지금까지 대관장님의 큰 소망은 주님의 영을 통해 다른 많은 이들을 주님께 높이 들리우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있으며, 또한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져 몇 가지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할 수도 있다.

1928년, 헌터 대관장은 캘리포니아주로 이사하여 주경 야독한 끝에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사우스웨스턴 법률 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법조인 협회에 가입하였으며 저명한 기업 고문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유타주로 이사한 후, 유타주 법조인 협회에 가입하였다.

1959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기 전까지, 헌터 대관장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장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교회 부름을 받아 봉사했었다. 헌터 대관장은 그 당시 스테이크장으로서 캘리포니아 남부 복지 지구 위원장으로 봉사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성전 건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헌터 대관장은 1931년에 클라라 메이 켈스 자매와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아들 셋을 두었으나 만아들은

우리 모두 성전에 열심히 참석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백성이 됩시다.

우리 모두 시간과 재물과 개인적인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서둘러 갑시다.

새로운 대관장님

또한 힝클리 부대관장은 헌터 대관장의 뒤를 이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받고 성별받았다. 한편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로 부름받았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기자들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지난 33년 동안 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은 1907년 11월 14일, 아이다호주 보이스에서 출생했다. 헌터 대관장은 소년 시절, 소년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아이다호주에서는 두 번 째로 이글 스카우트상을 수상한 바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 1983년에 헌터 자매가 작고한 뒤, 헌터 대관장은 1990년에 이니스 베르니스 이건 스탠튼 자매와 재혼하였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1910년 6월 23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생하였으며, 후에 이곳에 소재한 유타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영국에



지난 6월 6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관장단을 발표하고 있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중앙), 고든 비 힝클리 제1보좌(좌), 토마스 에스 몬슨 제2보좌(우).

서 2년간의 선교 사업을 마친 뒤 힝클리 부대관장은 교회의 여러 가지 부름을 받아 봉사했으며, 1958년에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부름받을 당시 이스트 밀 크릭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1961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성임되었으며, 1981년에 대관장단 보좌로 부름받았다. 그는 그 다음해인 1982년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의 제2보좌로 지명받았다. 킴볼 대관장이 작고한 뒤 힝클리 부대관장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제1보좌로 부름받았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전, 힝클리 부대관장은 20년간 교회 공보 프로그램 책임자로 봉사했으며, 이후 본부 선교사 위원회의 집행 서기로 7년간 봉사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최근에 미국 소년단 연맹에서 수여하는 최고 영예상인 실버 버팔로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마조리 페이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1927년 8월 21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유타 대학교에서 경영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졸업 후 모교의 경영학부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후에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 무렵 몬슨 부대관장은 미 해군에서 짧은 기간 동안 복무하였다. 그는 출판 및 인쇄 분야에서 탁월한 경력을 쌓았으며, 감독 및 선교부장을 포함해 수많은 교회 부름을 받아 봉사하였다. 1963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을 당시 그는 템플 뷰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몬슨 부대관장은 1985년에 벤슨 대관장의 제2보좌로 부름받았다.

몬슨 부대관장은 1969년부터 미국 소년단 집행 이사회의 일원으로

봉사해 왔으며 미국 소년단의 최고 영예상인 실버 버팔로상을 받았다.

그는 프랜시스 버벌러 존슨 자매와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대리는 1924년 9월 10일, 유타주 브리감시에서 출생하였으며,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공군 조종사로 복무하였다.

교육자로 평생을 살아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대리는 처음에 유타주 옥덴시에 소재한 웨버 주립 대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브리감시의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패커 회장 대리는 교회 신학 연구원 증등부 및 대학부 책임자로 봉사했으며, 1961년에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부름받아 봉사하다가 후에 선교부

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1970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았다.

패커 회장 대리는 도나 스미스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열 자녀를 두고 있다.

변함없는 간증

.....

교회의 새로운 대관장이 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형제였던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작고하신 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신 뒤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 앞에서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분이 계시지 않아 허전함을 강하게 느낍니다.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이제 제가 맡게 된 높고도 거룩한 부름에 합당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제게 가장 큰 힘이 되 주었던 것은 바로 이 사업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사업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고, 권능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요 머리가 되시며 그분이 이 교회를 말씀과 행위로 인도하신다는 저의 변함없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제 생명과 힘과 온 영혼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수행해야 할 이 새로운 임무에 대해 제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준 제 아내와 가족에게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또한 저의 보좌로서 봉사해 달라는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께 저의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과 다른 교회 총관리 역원들께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분들을 매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세계 만방의 교회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온전한 축복을 받고자 노력하시는 교회 회원들에게 두 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교회 회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범, 특히 그분이 보여 주셨던 사랑과 소망과 동정심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며 생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더욱 친절하고, 더욱 공손하며, 더욱 겸손하게 대하고, 더욱 인내심을 갖고, 더욱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서로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발전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더욱 철저하게 생활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차가운 리버티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혀 있던 예언자 요셉에게 말씀하셨듯이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위선이나 간교함이’(교리와 성약 121:41~42) 없는 생활을 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범법을 했거나 실족한 분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처를 입었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든 잘못으로 인해 혼란을 겪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모든 진리의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시가 주어지는 교회에 나아오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십시오. 저희 곁에 함께 서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신앙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며, 또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 차려진 만찬을 마음껏 즐기시고 그 만찬을 배풀어 주신 선한 목자를 따르고자 노력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사랑, 곧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받고 또 배워십시오.

“둘째, 저는 첫번째와 똑같은 영으로, 교회 회원들에게 주님의 성전을 자신이 회원이라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위대한 상징의 장소요 가장 거룩한 성약을 맺을 수 있는 하늘과 같은 성스러운 곳으로 만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진심으로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비록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자주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성인 회원들이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또 소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전에 열심히 참석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백성이 됩시다. 우리 모두 시간과 재물과 개인적인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서둘러 갑시다.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성전 의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고 그 거룩하고 성결한 곳에서 정결케 되고 안전케 되기 위해서도 성전으로 갑시다. 성전은 아름다운 장소요 계시의 장소이며 평화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주님께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

십이사도 정원회에 새로 부름받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6월 23일, 대관장단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발표했다.

홀런드 장로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주례 모임에서 성임받았다.

홀런드 장로(53세)는 1989년 4월 1일부터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해 오고 있었다. 십이사도로 부름받을 당시, 그는 북미 서부 지역의 지역 회장단 보좌와 교회 협의부의 집행 책임자 보조로 봉사하고 있었으며 그 전에는 북유럽 및 북미 남동 지역 회장단, 그리고 본부 청남 회장단에서 봉사했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감독, 세 스테이크장의 보좌 및 지구 대표 등으로 봉사했다. 그는 또한 멜기세덱 신권 상향회 책임자와 교회 청년 및 독신 성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봉사했다. 젊은 시절, 그는 영국에서 1960년부터 1962년까지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다.

(1960~1962)

1980년부터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던 1989년까지, 홀런드 장로는 유타주 프로보 소재의 브리감 영 대학교의 제9대 총장으로 재임했으며 교회 교육 기구의 교육감, 브리감 영 대학교의 종교 교육 대학 학장 및 신학 연구원의 대학부 교사 등을 역임했다.

홀런드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영어학 학사 및 종교 교육학 석사 학위를, 예일 대학교에서 미국학 부문의 철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와 *하늘에서처럼 지상에서도*라는 두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하늘에서처럼 지상에서도*는 그의 부인 패트리샤 자매와 공동으로 집필한 것이다.

홀런드 장로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전까지 많은 전문 교육 협회에서 활동적으로 일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했던 그의 업적으로 인해

그는 미국에 있는 한 유대인 단체에서 수여하는 “자유의 횃불”상을 수상했다. 그는 다수의 민간-기업 관련 회사의 이사회에서도 봉사해 왔다.

홀런드 자매는 네 차례의 상호부조회 회장, 2년 동안의 본부 청년회장단에서의 봉사 등을 포함하여 많은 교회 부름에서 봉사해 왔다.

홀런드 장로 부처는 1963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고, 한 명의 증손이 있다.

199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홀런드 장로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그분의 끊임없는 소망에 대해 간증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낙담과 슬픔과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찬 시대에, 인간성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앓고 있는 때, 저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엔사인, 1993년 11월호, 14~15쪽) □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지요, 하겠습니다.”



손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김덕기 형제와 이교 자매.

금년 들어 도봉 와드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매주 와드 건물 현관 앞에서 환한 모습으로 회원들을 맞이하시는 노부부의 인사를 받게 된다. 다른 회원들보다 30분 일찍 교회에 나오셔서 참석하는 분들에게 순서지와 함께 그 분들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계신지도 벌써 3개월 가량, 와드 회원들에게 봉사의 모범이 되고 계시다.

김덕기 형제님과 이교 자매님은 금년에 각각 62세, 59세로서 둘째 아드님인 김용구 형제(미아 와드 장로 정원회장)가 군 복무 시절 복음 선교사의 인도로 1981년 4월 4일 삼청 와드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1984년 6월 18일,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 선교사로 출발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며 변화되는 김용구 형제의 모습을 보고 이교 자매님은 1986년 6월 8일 침례를 받으셨고 1989년

12월 셋째 아드님인 김정원 형제(도봉 와드 서기)가 복음 선교사로 출발하고 난 후인 1990년 5월 27일 김덕기 형제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둘째 따님과 함께 모두 5명의 가족이 교회 회원이 되었다. 교회 회원도 아니시면서 어떻게 두 분의 아드님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허락하셨냐는 주위 사람들의 질문에는 “자기네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겸손한 모습에서 자녀들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느낄 수 있었다.

1993년 12월 16일 김 형제님과 이 자매님은 서울 성전에서 부부로 인봉되면서 사랑하는 두 아드님과도 부모와 자녀로 인봉되었다.

인봉 의식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안식일, 두 분에게 적절한 교회 부름을 드리고자 고심하던 젊은 감독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두 분을 접견하고 조심스럽게 와드의 영접자

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선선히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지요, 하겠습니다”였다. 주님은 이미 잘 준비된 영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고 이 분들을 통해 신권 지도자의 권고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 그 분의 많은 자녀들을 훈육하고 계심에 감사드린다. □

(기사 제공: 최석구 형제)

까만 세상 속에 하얀 세상이...

이정화 자매

(청주 스테이크 예성 지부)

까만 하늘은 볼 수 있어도 그 속에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형 색색의 아름다운 색깔들은 커녕 자기 얼굴조차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보고자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제가 토요일마다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맹아입니다. 전 토요일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저에겐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목욕도 시켜주는 등 여러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까만 세상’ 이것이 그들이 갇힌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아이들의 해맑고 밝은 웃음 속에서 그들에게도 까만 세상 속에 하얀 세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워 울기

도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세상에선 모두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휠체어가 아닌 건강한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복음이 저를 위로해줍니다. 이들에게 제가 가진 복음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자들을 작은 힘이지만 도와줄 수 있어서 또한 기쁩니다.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 주면서 예전에 마음이 건강하지 못했던 저를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도 몸도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그 하루의 작은 시간



이우향 자매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현아야! 현진아! 얼른 얼른 준비해라. 응?”

“준비물 빠진 것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라 현아야?”

“현진이는 크레파스 챙겼니?”

아이들을 재촉하고 도와 주며 내 몸은 너무 바쁘지만 입도 그에 못지 않다.

두 아이가 학교와 유치원으로 출발하고 나면 어지러진 집안을 대강 치우고 세 살짜리 성준이를 준비시켜 데리고는 나도 부랴 부랴 집을 나선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오늘은 어느 어느 자매님이 나오실까?’ 생각한다. 서둘러 나온 덕분에 늦지는 않겠다 싶어 안도한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아침에 겪은 그 복새통을 생각하니 웃음이 난다.

매달 첫째주 화요일마다 바쁘게 찾아가는 곳은 ‘성린 재활원’, 지난해 4월부터 인연을 맺어온 그 곳은 50여명의 신체 장애자들이 모여 재활의 의지를 펴는 곳으로 신체의 자유한 부분을 이겨내는 각고의 장이기도 하다. 비록 단순 작업이지만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장애를 극복하여 직업을 갖기도 한다. 모든 여건이 어려워 그 분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바로 우리 부평 와드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도와 주고 있다. 식당이며 화장실, 숙사의 청결을 위해 대청소와 그들의 침구 손질과 세탁, 불결한 곳 정리 정돈, 화단 가꾸기 등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

나는 나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 지도자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노력했고 경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껴보기도 했었다. 예배 시간의 특별한 영적인 경험도 또 기쁨도 여러 번 경험해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봉사를 통하여서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나는 새삼 깨달았다. 그것은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

라 참여한 모든 자매님들도 알고 있으리라. 그리고 연년생인 아이 셋을 업고 안고 데리고 오시는 자매님과 출산을 앞둔 무거운 몸으로 꼭 참석하시는 자매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바쁜 중에도 연로하신 부모님의 점심 식사 준비까지 해 놓고 오시는 자매님, 또 그러한 일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나이인 독신 자매들까지도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볼 때 그 모든 자매님들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에 꽉 차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자녀임이 행복하다.

모든 일을 끝내고 귀가 할 때는 행복이란 큰 보상을 선물로 받는다. 발걸음 또한 가볍고 가슴은 뿌듯하다. □

역원 변경

◎ 영동 스테이크

영동 와드 감독: 김만주 형제
(전임자: 박용길 형제)

신장 지부 지부장: 전형배 형제
(전임자: 김영권 형제)

가족 음악회

지난 1994. 6. 26(일) 저녁 7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의 예배실에서는 작고 아름다운 음악회가 열렸다.

권찬태 형제(전 대구 스테이크장)의 가족이 틈틈이 시간과 노력을 모아 연습해 오던 소품들을 발표한 "제2회 가족 음악회"가 그것이다. 장남 권영준 형제의 사회로 시작된 이 음악회에서 권찬태 형제는 가족 음악단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서 가족들이 재능을 키울 수 있었던 축복을 이웃과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교회와 사회 여러 곳에서 참석한 청중들께 감사를 표했다.

김정애 자매의 장중한 올겐 독주로 출발한 음악 순서에선 부부의 '피아노 듀엣', 형제간의 '바이올린 듀엣' 가족의 '오르간과 스트링 앙상블', 4부자의 '중창' 등 가족들의 음악을 통한 화합과 단란함을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맘껏 발휘하였고 안식일 저녁을 평화롭고 감미로운 선율로 수놓았다.

청중 또한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나 '아 목동아'등 대부분 귀에 친숙한 음악들로 어려움 없이 연주자와 하나가 되어 편안히 감상할 수 있었다.

특별히 2개월 전 조직되어 권영준 형제의 지휘와 사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 스테이크 합주단은 음악에 초보인 회원들이지만 그간 1주일에 한번씩 교회에 모여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를 훌륭하게 연주하여 갈채를 받았다. 또한 온누리 합창단의 지휘자인 '도부민'형제도 찬조 출연하여 돈독한

친지애를 보이며 자리를 빛냈다.

모든 회중이 소리모아 부른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을 끝으로 한 시간여의 연주회를 마쳤으며 안식일이고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앵콜을 소리높여 외치지 못하고 박수를 있는 힘껏 보낼 수 없음을 아쉬워하였

다.

복음안에서 훌륭한 가정의 본보기를 보여준 권찬태 형제의 가족들께 감사와 부러움을 느끼며 이 다음 한층 발전된 음악회를 통해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

(기사 제공: 강미경 자매)

선교사 훈련원 제 165기

(1994. 6. 20~7. 8)

〈성명〉	〈출신지〉	〈선교부〉
변창기 장로	대구 S / 대명 W	서울 선교부
윤은영 자매	인천 S / 답동 W	대전 선교부
이인희 자매	안양 S / 과천 W	부산 선교부
정명숙 자매	인천 S / 답동 W	부산 선교부
정영미 자매	부산 S / 수정 W	서울 서 선교부
조영석 장로	부산 S / 광안 W	서울 선교부
주영미 자매	부산 S / 온천 W	서울 서 선교부



뒷줄 왼쪽부터 : 윤은영, 정명숙, 주영미, 이인희, 정영미.

앞줄 왼쪽부터 : 조영석, 변창기.